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최수경 · 정수진 · 추미선⁺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조교수 · 경상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Elderly Women's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Soo-Kyoung Choi · Su-Jin Jeong · Mi-Seon Ch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 Care, Mas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 8. 22, 심사(수정)일: 2012. 3. 19, 게재확정일: 2012. 3. 2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derly women's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305 elderly women living in Gyeongnam province from May and June of 2011.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F-test, t-test, Duncan test, Cronbach's α ,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body image was composed of two factor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erest in appearance', and 'concern about weight'. The clothing behavior was composed of the following five factors: 'social importance', 'conformity' 'individuality' 'economic efficiency' and 'clothing · fashion interest'. The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elderly women' demographic showed many differences. Elderly women's body image influenced their clothing behavior. These study results are highly expected to be used as valuable sources in fashion marketing plans for industries that target elderly women.

Key words: body image(신체이미지), clothing behavior(의복행동),
demographic characteristic(인구통계적인 변인), elderly women(노인여성)

I. 서론

노년기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생활여건 및 가치관과 취향의 변화로 인하여 일생의 어떤 시기 못지않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복의 사회적 의미나 기능, 디자인 등에 대한 태도와 욕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의복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보완하여 노후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 및 사회관계에 대한 적응이나 자아개념의 재확립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아이미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¹⁾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의 의복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욕구를 만족시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의생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의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통계적인 변인, 마케팅자극요인, 심리적 특성, 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의 외형적 변화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의 보완적 기능이 크게 중시되는 시기이다. 19-5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인화²⁾는 신체이미지가 심미성, 우월성, 정숙성, 유행동조성,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의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개인이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견해이자 개인적 감정과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이미지³⁾는 성인은 물론 노인의 의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노인의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생활 실태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들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 나이, 월평균지출액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⁵⁾, 패션아이템별 구매실태 및 선호이미지⁶⁾등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노인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들과 달리 경제수준의 향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과 사회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인해 의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의복을 통해 자기표현 욕구와 쾌락 및 안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된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노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앞으로 의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노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패션산업에 관심이 집중되며 노인 의류 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의류 시장은 노인의 의복행동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청장년 의류 시장 중심으로 발달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요인과 의복행동의 요인을 분석한 후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라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노인여성 소비자의 의생활 이해와 실버패션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이미지의 핵심 요소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되며,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지향적 측면이 있다. 인지적 측면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 정도이며, 정서적 측면은 개인의 신체 크기나 몸무게,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이나 평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행동지향적 측면은 자신의 외모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다양한 외모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⁷⁾

Cash⁸⁾는 신체이미지의 요인을 감정적 차원,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감정적 차원은 신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모평가와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은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점 및 중요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심을 갖는 정도인 외모지향성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을 연구한 김인화⁹⁾는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을 요인 분석한 결과 신체이미지는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 자신감, 외모무관심의 4가지 요인으로, 의복행동은 심미성, 우월성, 편안성, 정숙성, 유행동조성,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 개성, 경제성의 8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외모관리를 잘할수록 의복행동 중 심미성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유행에 동조하는 것으로, 외모에 무관심할수록 정숙성과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여성의 신체이미지는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가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송경자와 김재숙¹⁰⁾의 연구를 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는 40대 보다 자신을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와 신체매력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유행관심, 의복을 통한 과시성,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20대 보다 체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실과 이금실¹¹⁾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여대생일수록 의복이 본인의 결점을 보완하고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며, 다소 과감한 연예인의 옷을 모방하거나 비싼 의복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고생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하주연 외¹²⁾는 신체이미지의 요인으로 자각적 신체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의 3가지 차원을 도출하였다. 의복관심/유행 요인에는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이, 의복과시성 요인에는 외모관심이, 의복의 사회적 승인성 요인에는 외모관심과 자각적 신체평가,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에는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이, 외모관련비행에는 외모관심, 체중관심, 자각적 신체평가가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청장년층 여성의 신체이미지는 다차원 구조로 도출되었고, 의복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여성 또한 신

체이미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2. 노인여성의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관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을 통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관심, 태도, 가치관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의복행동은 자기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¹³⁾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학의 발달 및 경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노인들의 의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의생활 실태와 의복구매행동을 알아본 위혜경과 손희순¹⁴⁾의 연구에서 92.7%가 보통 이상의 의복관심도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의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와 이은실¹⁵⁾은 노인 여성은 학력이 높고, 용돈 지출이 많을수록 의복관심도가 높고, 의복 관심도는 노인 여성의 자신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해 분석한 이영주와 김점혜¹⁶⁾의 연구를 보면 의복행동의 요인은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의복에 대한 만족도, 유행에 대한 관심인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이가 어리고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자와 김인숙¹⁷⁾은 디자인, 색상, 가격이 노인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복구매기준이라고 하였다. 의복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위협으로는 품위를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지, 지나치게 눈에 띄는 옷을 사게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값싸게 보일 것에 대한 걱정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은¹⁸⁾의 연구에서는 패션에 관한 태도가 주된 소비도, 패션정보 관심도, 과시적 소비도, 실용적 소비도의 4가지 차원으로 추출되어 노년층 여성을 편

안함과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패션에 관해서 다양한 태도를 갖는 집단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의복행동과 착용감을 비교한 이영주¹⁹⁾의 연구에서는 한국은 의복 구매시 정보원으로 인적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반면 미국은 매체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착용감보다 의복행동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노년 여성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문화권에 따라 의복행동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박명자 외²⁰⁾에 의하면 노년층은 의복을 착용할 때 의복 재료의 건강 쾌적 성능의 모든 항목을 중요시하므로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통해 생리적인 기능저하를 보완한다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노인여성의 의복과 관련된 행동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고, 인구통계적인 변인과 심리적 특성이 의복의 구매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요인을 알아본다.
- 둘째,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구통계적인 변인 5문항, 신체이미지 10문항, 의복행동 20문항으로 모두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인 변인은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직업유무, 한 달 용돈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배우자유무는 있다와 없지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무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이상까지 5단계로 하였다. 직업유무는 있다와 없지로 구분하였고, 한 달 용돈은 20만원미만,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각 문항에서 해당되는 1개의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의복행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의복행동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측정방법은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신체이미지에 관해서 분석한 김용숙²¹⁾, 김인화²²⁾, 이미숙과 손경자²³⁾, 하주연 외²⁴⁾ 등의 연구, 의복행동에 관해서 분석한 김인화²⁵⁾, 송경자와 김재숙²⁶⁾, 심정희²⁷⁾, 이미숙과 송경자²⁸⁾, 하주연 외²⁹⁾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가장 빈도수가 높고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60-80대 사이의 노인여성 30명)를 거쳐 수정, 보완된 문항을 각각 10개와 20개를 선정하였다.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0.40 이하로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0.43, 0.45, 0.46과 같이 비슷한 요인부하치가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한 17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80대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2011년 5-6월에 실시하였다. 수집 장소는 노인학교, 경로당, 교회, 성당, 문화센터, 대학소속 평생교육원 등 공적인 장소였다. 수집 방법은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였으나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2-3인으로 구성된 전공 관련 대학생들이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응답을 표기하는 직접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조사자를 투입하여 내적타당도를 높였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한 30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0-64세가 58명, 65-69세가 99명, 70-74세가 85명, 75-79세가 45명, 80세 이상이 18명이었으며, 배우자유무는 있다가 164명, 없다가 141명이었다. 학력은 무학력이 12명, 초등학교졸업이 102명, 중학교졸업이 109명, 고등학교졸업이 62명, 대학졸업이상이 20명으로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많았다. 직업유무는 있다가 43명, 없다가 262명으로 나타났고, 한 달 용돈은 20만원 미만인 70명, 20-50만원이 138명, 50-100만원이 44명, 100-150만원이 28명, 150만원 이상이 25명으로 20-5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의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인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 검증, t 검증, Duncan검증을 하였다.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요인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에 관한 요인 분석은 10문항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4.55%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8.84%였으며, 나는 신체적 매력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핀다,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을 만족한다, 나는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있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은 선행연구들³⁰⁾에서 나타난 신체매력과 외모관심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으로 명명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0$ 였다.

요인 2는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나는 체중이 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신경이 쓰인다, 나는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이 쓰인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변량의 25.71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요인은 선행연구들³¹⁾에

<표 1> 신체이미지의 요인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나는 신체적 매력에 있다.	.76	2.88	28.84	28.84	.80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71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69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핀다.	.68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을 만족한다.	.66				
	나는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있다.	.58				
체중관심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84	2.57	25.71	54.55	.77
	나는 체중이 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신경이 쓰인다.	.79				
	나는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69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이 쓰인다.	.69				

서 나타난 체중관심과 유사하여 체중관심으로 명명하였고, 6문항들 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7$ 이었다.

전체 변량에서 2가지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4.55%였다.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을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요인 분석은 17문항으로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9.23%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 옷차림을 유심히 본다고 생각한다, 나는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나는 나의 옷차림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은 심정희³²⁾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중요성과 유사하여 사회적 중요성으로 명명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1$ 이었다.

요인 2는 12.91%의 설명력으로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입고 있거나 비슷한 옷을 선택한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옷을 사고 싶다, 모임에 갔을 때 내 옷이 친구들의 옷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의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요인은 선행연구³³⁾의 의복동조성과 유사하여 동조성으로 명

<표 2> 의복행동의 요인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	누적변량 (%)	신뢰도 계수
사회적중요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 옷차림을 유심히 본다고 생각한다.	.78	3.27	19.23	19.23	.81
	나는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0				
	나는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68				
	나는 나의 옷차림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68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다.	.66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62				
동조성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입고 있거나 비슷한 옷을 선택한다.	.78	2.20	12.91	32.15	.71
	친구들이 새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옷을 사고 싶다.	.78				
	모임에 갔을 때 내 옷이 친구들의 옷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69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63				
개성	내가 입어서 만족스러운 옷이면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	.75	1.91	11.21	43.36	.67
	나는 옷을 살 때 유행에 관계없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산다.	.68				
	나는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옷이 좋다.	.68				
경제성	나는 제일할 때 옷을 사려고 제일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82	1.70	10.01	53.36	.64
	나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좀 더 싼 곳에서 구입한다.	.81				
의복·유행관심	나는 옷에 맞는 액세서리를 즐겨하는 편이다.	.84	1.65	9.71	63.07	.50
	새로 유행하는 옷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71				

명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1$ 이었다.

요인 3은 11.21%의 설명력으로 내가 입어서 만족스러운 옷이면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나는 옷을 살 때 유행에 관계없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산다, 나는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옷이 좋다는 3문항이 구성되어 개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김현화 외³⁴⁾의 개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7$ 이었다.

요인 4는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0.005%였고, 나는 세일할 때 옷을 사려고 세일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좀 더싼 곳에서 구입한다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의복행동을 연구한 심정희³⁵⁾의 경제성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4$ 였다.

요인 5는 전체 변량에 대한 9.71%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옷에 맞는 액세서리를 즐겨하는 편이다, 새로 유행하는 옷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의복·유행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이 때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50$ 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량에서 5가지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8.07%였다. 사회적 중요성과 동조성 요인은 누적 변량이 32.15%로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유행관심이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동조성이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던 20세 이상의 성인여성의 의복행동³⁶⁾과는 차이를 나타내며, 의복행동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2.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

노인여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표 7>과 같으며, 한 달 용돈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 달 용돈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체중관심($F=3.2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00-150만원 사이, 150만원이상, 20만원미만, 50-100만원사이, 20-50만원사이의 순으로 높았다. 한 달 용돈으로 100만원이상을 쓰는 노인여성은 20-50만원을 쓰는 노인여

<표 3> 연령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분석

		연령					F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신체 이미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3.13	3.15	2.93	3.13	3.23	1.70
	체중관심	3.00	3.16	3.01	2.95	3.30	1.00

<표 4> 배우자유무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분석

		배우자유무		t
		있다	없다	
신체 이미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3.13	3.04	1.15
	체중관심	3.15	2.99	1.65

<표 5> 학력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분석

		학력					F
		무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이상	
신체 이미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3.32	3.14	3.12	2.90	3.15	1.84
	체중관심	3.61	3.08	3.08	3.04	2.87	1.69

〈표 6〉 직업유무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분석

		직업유무		
		있다	없다	t
신체 이미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3.00	3.10	-0.95
	체중관심	3.00	3.09	-0.64

〈표 7〉 한달용돈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분석

		한달용돈					F
		20만원 미만	20-50만원 사이	50-100만원 사이	100-150만원 사이	150만원 이상	
신체 이미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3.20	3.01	3.06	3.24	3.08	1.35
	체중관심	3.18ab	2.93b	3.04ab	3.36a	3.35a	3.22*

*: p<.05,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성보다 체중관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여성층에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여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표 12〉와 같으며, 연령, 학력, 한 달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은 경제성 요인(F=3.03,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80세 이상이 60-64

세, 65-69세, 75-79세, 70-74세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80세 이상의 노인여성은 다른 연령층의 노인여성보다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의복행동은 사회적 중요성 요인(F=4.28, p<.01), 동조성 요인(F=7.98, p<.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중요성 요인은 초등학교졸업이상, 중학교졸업, 대학교졸업이상, 무학력, 고등학교졸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졸업이상

〈표 8〉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분석

		연령					F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의복 행동	사회적중요성	2.77	2.84	2.76	2.66	2.70	0.56
	동조성	3.19	3.01	3.15	3.18	2.95	0.82
	개성	2.80	2.72	2.80	2.62	2.83	0.60
	경제성	3.20b	3.07b	2.70b	2.91b	3.72a	3.03*
	의복·유행	2.97	2.93	2.93	2.93	2.96	0.03

*: p<.05,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9〉 배우자유무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분석

		배우자유무		
		있다	없다	t
의복 행동	사회적중요성	2.72	2.83	-0.13
	동조성	3.11	3.11	-0.02
	개성	2.65	2.86	-2.49
	경제성	3.12	3.04	0.76
	의복·유행	2.91	2.97	-0.54

〈표 10〉 학력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분석

		학력					F
		무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	
의복 행동	사회적중요성	2.67ab	2.93a	2.81ab	2.47b	2.79ab	4.28**
	동조성	2.92c	3.08bc	2.87c	3.48a	3.44ab	7.98**
	개성	2.67	2.78	2.80	2.74	2.39	1.37
	경제성	3.45	3.02	3.13	3.07	3.00	0.71
	의복·유행	2.86	3.06	2.95	2.75	2.89	1.42

** : $p < .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1〉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분석

		직업유무		
		있다	없다	t
의복 행동	사회적중요성	2.59	2.80	-1.73
	동조성	3.23	3.09	1.12
	개성	2.61	2.77	-1.31
	경제성	3.19	3.06	0.86
	의복·유행	2.78	2.97	-1.37

〈표 12〉 한달용돈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분석

		한달용돈					F
		20만원 미만	20-50만원 사이	50-100만원 사이	100-150만원 사이	150만원 이상	
의복 행동	사회적중요성	2.87	2.68	2.69	3.03	2.83	2.09
	동조성	3.26a	3.13a	3.21a	3.15a	2.45b	6.07***
	개성	2.84	2.65	2.82	2.97	2.69	1.66
	경제성	3.20	3.05	2.87	3.33	3.04	1.43
	의복·유행	2.98	3.98	2.83	3.04	2.73	0.77

*** : $p < .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노인여성은 옷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타인은 물론 나를 위해서라도 옷차림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동조성 요인은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이상, 초등학교졸업, 무학력, 중학교졸업의 순으로 높이 평가되어 대학졸업이상의 노인여성은 소속된 집단이나 단체와 유사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달 용돈에 따른 의복행동은 동조성 요인($F = 6.07$,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50만원 이상이 20만원미만, 20-50만원사이, 50-100만원사이, 100=150만원사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노인여성은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3.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의복행동 중 사회적 중요성 요인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t = 8.52$, $p < .001$), 체중관심($t = 2.63$, $p < .01$), 즉 신체이미지의 모든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13〉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 ²	F
의복 행동	사회적 중요성	(상수)	-.01		-.13	.30	38.66***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50	.53	8.52***		
		체중관심	.15	.16	2.63**		
	동조성	(상수)	.01		.17	.02	1.36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09	-.09	-1.18		
		체중관심	-.09	-.09	-1.21		
	개성	(상수)	-.01		-.14	.04	4.16*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09	-.10	-1.31		
		체중관심	.17	.18	2.50*		
	경제성	(상수)	.01		.10	.07	6.93**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15	.16	2.17*		
		체중관심	.22	.22	3.14**		
	의복·유행 관심	(상수)	.00		.01	.06	6.03**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23	.24	3.30**		
		체중관심	.09	.09	1.25		

*: p<.05, **: p<.01, ***: p<.001

특히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이 체중관심보다 사회적 중요성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스로 신체적 매력을 지녔다고 여기면서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노인여성이라면 의복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동조성 요인은 신체이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대학생의 의복행동 중 동조성 요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이미숙과 송경자³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층에 상관없이 친구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많이 하는 동조적인 의복행동에는 신체이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개성 요인은 신체이미지 중 체중관심(t=2.50,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에 관심이 많은 노인여성이라면 개성적인 옷차림을 즐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60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을 분석한 김인화³⁸⁾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가 개성적인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에 따라 신체이미지가 개성적인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경제성 요인은 신체이미지의 모든 요인인 신체매

력 및 외모관심(t=2.17, p<.05), 체중관심(t=3.14, p<.01)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중요성 요인에서와 달리 체중관심이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높은 노인여성이라면 의복 구입 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이미지가 경제적인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김인화³⁹⁾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은 동일한 여성이지만 연령층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연령층이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복·유행관심은 신체이미지 중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t=3.30,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이 높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노인여성은 의복과 유행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매력과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다고 분석한 선행연구들⁴⁰⁾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 또는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노인여성 305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별로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와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는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체중관심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즉,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는 신체매력과 외모관심 요인이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표현하고자 하는 신체이미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행동은 사회적 중요성, 동조성, 개성, 경제성, 의복·유행관심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요인은 다차원 구조를 형성하며 다양한 의복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들 요인 중 사회적 중요성과 동조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드러났다.

둘째,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는 인구통계적인 변인 중 한 달 용돈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체중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은 인구통계적인 변인 중 연령, 학력, 한 달 용돈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경제적인 의복행동을 추구하였다. 초등학교졸업의 저학력자는 의복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이 150만원미만인 노인여성은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하는 반면 150만원이상인 노인여성은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여성의 의생활을 분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인구통계적인 변인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이미지를 보면 의복행동 중 사회적 중요성과 경제성 요인은 신체이미지의 모든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사회적 중요성 요인에는 신체이미지가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요인에는 체중관심이, 의복·유행관심 요인에는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80대 노인여성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년층 소비자의 패션시장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지역과 성별, 심리적 특성 등 노년층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영주, 김점해 (2007),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기성복 맞춤새,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p. 124.
- 2) 김인화 (2010),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 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9), pp. 1442-1453.
- 3)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358-365.
- 4) 남윤자, 김인숙 (1998), 한국 노인여성의 의복구매행동과 의복불만, *복식문화연구*, 6(4), pp. 162-174.
- 5) 박은주, 강은미 (2005), 실버패션마켓의 의복충동구매행동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pp. 871-882.
- 6) 위혜정, 손희순 (2000), 노년(老年) 여성(女性)의 의복구매행동(衣服購買行動)에 관(關)한 연구(研究), *패션비즈니스*, 4(4), pp. 29-40.
- 7) 김점해, 이영주 (2010), 노인여성의 패션아이템별 구매실태 및 선호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3), pp. 279-290.
- 8) 이영주, 김점해, *op. cit.*, pp. 123-135.
- 9) 김용숙 (2009), 성인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신체 및 화장이미지, *복식*, 59(3), p. 57.
- 10)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image relations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Body-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11) 김인화, *op. cit.*, pp. 1442-1453.
- 12)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pp. 391-402.
- 13) 정미실, 이금실 (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pp. 131-140.
- 14)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pp. 715-726.
- 15) 김인화, *op. cit.*, p. 1443.
- 16) 위혜정, 손희순, *op. cit.*, pp. 29-40.

- 15) 이명희, 이은실 (19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 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pp. 1072-1081.
- 16) 이영주, 김점해, *op. cit.*, pp. 123-135.
- 17) 남윤자, 김인숙, *op. cit.*, pp. 162-174.
- 18) 백재은 (2005), 노년 여성의 패션에 관한 태도와 기성복 재킷의 선호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pp. 990-998.
- 19) 이영주 (2010), 한국과 미국 노년 초기 여성의 의복행동과 착용감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6), pp. 774-780.
- 20) 박명자, 김정민, 박재옥 (2010),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의 착용행동, *복식문화연구*, 18(6), pp. 1063-1075.
- 21) 김용숙, *op. cit.*, p. 61.
- 22) 김인화, *op. cit.*, p. 1447.
- 23) 이미숙, 송경자 (2009),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p. 444.
- 24) 하주연, 고에란, 정미실, *op. cit.*, p. 720.
- 25) 김인화, *op. cit.*, pp. 1447-1448.
- 26) 송경자, 김재숙, *op. cit.*, p. 396.
- 27) 심정희 (2007),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행동, 의복 추구 이미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11), p. 1579.
- 28) 이미숙, 송경자, *op. cit.*, p. 445.
- 29) 하주연, 고에란, 정미실, *op. cit.*, p. 720.
- 30) 김용숙, *op. cit.*, p. 61.
이미숙, 송경자, *op. cit.*, p. 445.
하주연, 고에란, 정미실, *op. cit.*, p. 720.
- 31) 김용숙, *op. cit.*, p. 61.
김인화, *op. cit.*, p. 1447.
이미숙, 송경자, *op. cit.*, p. 445.
하주연, 고에란, 정미실, *op. cit.*, p. 720.
- 32) 심정희, *op. cit.*, p. 1579.
- 33) 이미숙 (2009),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3), p. 438.
- 34) 김현화, 이지연, 박명자 (2009), 청소년의 의복태도와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pp. 55-73.
- 35) 심정희, *op. cit.*, p. 1579.
- 36) 송경자, 김재숙, *op. cit.*, p. 396.
이미숙, 송경자, *op. cit.*, p. 445.
- 37) 이미숙, 송경자, *op. cit.*, pp. 441-449.
- 38) 김인화, *op. cit.*, pp. 1442-1453.
- 39) *Ibid.*, pp. 1442-1453.
- 40) 이미숙, 송경자, *op. cit.*, pp. 441-449.
전경란, 이명희, *op. cit.*, pp. 643-653.
하주연, 고에란, 정미실, *op. cit.*, pp. 715-726.